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21일(화) 제 3190호

권요안 "통합 부결 시 김관영 지사 사퇴하라"

권 의원 20일 임시회서 '맹비난' 높은 반대여론에도 주민투표 강행 "민심 외면한 통합 찬성 여론몰이"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서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김관 영 도지사는 주민투표에서 완주-전주 통 합이 부결될 경우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 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지난 14일 완주전주통합반 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통합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는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절규이자 완 주군민의 생존을 건 외침"이라고 강조했

또 "이미 세 차례 무산된 통합 논의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다시 불붙으며, 지역사회 갈등 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도지사는 공 정한 조정자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 찬성 캠프의 선봉장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압 도적으로 높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집요하게 주장해왔



권요안 도의원

가 주민투표 방 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11월 중순 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고, 행정안전부

민투표가 실시된 책임은 김관영 지사에게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완주군민 6천여 명의 찬 성 서명에 비해 3만6천여 명의 반대 서명 이 제출됐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방향이 다"며, "그럼에도 지사는 민심을 외면한 채 통합을 밀어붙이며 통합 찬성 여론몰 이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부결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 지사에게 있다"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 산 당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서 울시장처럼, 김 지사도 도민의 뜻을 거스 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된다.

순창군 '전북 유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2만 7천명 군민에 360만원 지원 체계적 준비·군민 참여로 성과 선순환 경제 모델 구축 기대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 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이달 13일 전국 인구감 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 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 시·도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 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17일 발표 평가를 거 쳐 20일 최종 7개 군으로 압축됐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 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 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 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 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 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 의 핵심 국정과제로, 순창군은 기본소



순창군, '8.2대1 경쟁' 뚫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선정

순창군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 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 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 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 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 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

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 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 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 한 것이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은 '모두의 햇빛 프로젝 트'를 통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인

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 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 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 는 모델을 설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체계적 활성화 모색

이명연 대표위원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형 치유음식' DB 구축

전북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20일 전 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 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 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연구 진,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 등 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 형 치유 음식관광 발전 방향을 논의했

이번 연구는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자치 도가 보유한 풍부한 음식문화 자산과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마련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원광대학교 손정민 교 수(식품영양학과)는 "지역별 치유음식 관광 사업은 지역의 지형, 문화, 자연환 경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며, "전북자 치도 치유 음식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치유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체 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선호 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회복과 웰 니스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를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형 치유음식관광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 구축(전북형 치유음 식 DB화 추진), ▲치유 콘텐츠 개발(한 옥밥상, 장담그기, 미니 김장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음식관광 플랫폼 조 성(세대별 맞춤형 치유음식관광 코스 개발), ▲산업 · 경제 선순한 구축(전북 형 치유음식관광 페스타 개최), ▲지속 가능한 브랜드 확립(Jeonbuk Healing Food Certified 제도 확립) 등 5단계 추 진 전략도 제시했다.

이명연 대표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 순한 음식관광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전북 자치도가 치유 음식관광 중심지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도 정책 반영과 제도화를 적극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 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위원, 장연국, 전용태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의원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심각"

5년간상호금융권계좌7만건정지 피해액3,433억환급률21%에그쳐 "고령층맞춤예방교육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5년간 국내 상호금융권(농협·신 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전기통신금 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지 급정지된 계좌가 7만여 건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 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신협·수협·새마 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보

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9,837건, 지 급정지된 계좌는 총 7만 129건으로 집 계됐다"며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농협 이 5만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 마을금고, 신협, 수협 순이었다. 피해 금 액은 5년간 3,433억 원, 환급액은 738억 원으로 환급률은 21%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역금융기관의 특성 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높은 만큼, 고령 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를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전북 K-푸드, LA 엑스포서 북미 입맛 사로잡아

전북 20개사 참여 홍보관 운영 현장 판매 37만 달러 성과 김치·떡 등 주요 품목 완판

전북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에서 K-푸드 열풍을 이어가며 전북 식 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LA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에서 열린 '제19회 LA 농수산물 우 수상품 엑스포'에 도내 20개 농수산식 품 기업이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 다. 이 기간 현장 판매액 372천 달러의 성과를 거두며 북미 소비자들로부터 큰 가 몰렸고, 김치·게장·떡 등 주요 품목 호응을 얻었다.

제재단이 주최하는 LA 최대 한인축제이 자 북미 대표 K-푸드 행사로, 4일간 약 다"는 호평을 남겼다. 30만 명이 방문했다. 신선 농산물, 전통・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판매되며, 한인 교 포는 물론 현지 미국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소비자들이 한국 식문화를 체험

전북도는 '전북 식품의 건강한 맛, 세 계로'를 주제로 도내 유망 식품기업 20 개사가 참여한 전북홍보관을 마련했다. 홍시떡, 김치, 게장, 젓갈, 국수, 단백질 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쉐이크, 콤부차 등 전통과 트렌드를 결 합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정 직한 맛과 품질'이라는 전북 식품의 강 점이 현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

행사 기간 전북홍보관에는 연일 인파 은 중반 이후 잇따라 완판 되었으며, 시 이번 엑스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축 식·시음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맛과 품 질이 뛰어나다", "포장 디자인이 세련됐

특히 이번 박람회는 미국 관세문제 등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LA서 열린 '제19회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도내 20개 농수산식품 기업이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전북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식품기 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기대하 고, 현장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트렌드와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북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반영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축산 산업국장은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전 북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 식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주영은 "청년농 정책 정착형으로 전환해야"

10년 새 청년농 비율 '절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농업 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 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 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 이 2015년 전체 농업인의 13.5%에 서 2024년 7.8%로 불과 10년 사이 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청 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인 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이 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구조적 위 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 인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의 문제점 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귀농창업자 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 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 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 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 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 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 날지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국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 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농 육성 시스템" 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라며 정책 전환의 구체적 방향을



국주영은 도의원

제시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선발 중심에서 성 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예비 청 년농의 역량

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별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 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처럼, 지역이 주도하여 청년의 정착부터 농지 확보,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청년이 지 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 가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멘토 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청년의 목소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 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주영은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로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빚으로 끝 달려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꿈 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 한 정책 전환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

> >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제45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인대상 4개 부문 시상 900여명 참석 100년 도약 다짐 도립국악원 창극단 등 축하 공연

전북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45 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행 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기관·단체장, 출 향도민, 전북인대상 수상자 등 900여 명 이 참석해 전북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개막 공연 '멋으로 사는 세상'으로 문을 열었 다. 이어 도민헌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 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의장이 함께 교차 낭독하며, 전북도 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선 언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 4개 분야에서 지역사 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에게 수여됐다. 혁신 부문에는 국내 최초 고상형 친환 경 통학버스를 개발한 강주일 ㈜아이버 스 대표이사, 경제 부문에는 지역 인재 채용과 수출시장 개척에 이바지한 이주 협 대륜산업㈜ 대표이사, 문화 부문에는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를 추 진한 임오경 국회의원, 나눔 부문에는 장학사업과 꾸준한 기부활동을 해온 김 영일 천일주택건설 회장이 각각 선정됐

행사 후반부에는 바리톤 오요한과 소 리꾼 이용선의 축하무대가 이어졌으며, 도립국악원 무용단과 창극단의 남도민 요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함께 '전북 아리랑'을 제창하며 도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성과를 이뤄냈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45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전북자치도>

의 새 시대를 열었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피지컬AI 예타면제 확 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가겠 정, RE100 추진, 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다"고 말했다.

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자치 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 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도전

/장정철 기자

전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95% 달성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전북도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총 1,545,798건, 1,546억 원 신청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95%에 해당한다.

2차 소비쿠폰의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 다. 1차,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 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두 11월 30일까지며, 사용하지 않은 소

비쿠폰은 소멸된다.

전북도는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기 위 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특히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주민센터에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의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새만금수목원 하도급 23건 중 전북업체 단 1곳"

근로일수 중 전북인력 17%뿐 특별법 우대조항 사실상 무력화

"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계약 23건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에 영업 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 뿐인 걸로 확인됐다"며 지역업체 홀 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대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 과했으며,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 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 라도 45.5% 수준인 17,634일에 그쳤다. 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현재 디엘이앤씨를 중심으로 5개 업체 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에 달 대상 선정 시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다"고 강조했다.

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며, 이 중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동경건 설과 정주건설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 특히 이들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료 분석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 전체 37,962일 중 6,460일로 17%에 불

반면, 전북업체인 진흥설비(익산 소재)



약을 체결할 때 전 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디 엘이앤씨의 하도급 선정 절차 및 발주 전략 회의에서는 전북업체를 입찰참여

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새만금사업법)

제53조에는 공사ㆍ

업체를 사실상 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새만금사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만 배불리는 결과"라며 "윤석열 정 부 시절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 물품·용역 등의 계 원에 힘쓴 도민들의 노력이 무색하다" 고 비판했다.

> 또한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사 전타당성 조사비 10억 원 반영을 촉구 하며 "서해안권 균형을 위해 산림청이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 /서울=김영묵기자

의약품 '중대 부작용' 급증…구제 제도 인지도 낮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날 반 면, 해당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피 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올 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 약품 이상사례 보고 296만8,865건 중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136건으로 전 체의 9.8%를 차지했다"며 "올해 비율

은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 중대 이상시례 피해구 해 8월까지 1,206건에 대해 총 188억 6,500만 원이 지급됐다.

2022년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30~40 대는 각각 42.2%에 그치는 등 제도 자 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 전문가 포럼'개최

구원)은 20일 전주 음식산업 발전 방향 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 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

음식산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주 음식산업 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 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금기형 (사)문화 유산창의공간 대표는 '전주음식의 정체 성 및 산업화·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전 주음식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전주가 '지속가능한 미식 생태 도시'로 주음식산업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미식산업 인프라 및 미식관광 콘텐츠'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주의 음식문화 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미식관광 콘텐 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그는 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미식 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 워 강화 △관광·교육 인프라 확대 △미 식관광 벨트화 △JK-푸드 세계화 △지 역 유통 전략 확대 등을 추진 전략으로 체류형 미식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제안했다.

이후 김남규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와 민동규 전주관광재단 사무국장, 오영호 한식진흥원 수석전문위원, 이우석 놀고 먹기연구소 소장, 차경옥 서울특별시 중 와 글로벌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며, 구청 경제관광정책협력관이 참여해 전

이 자리에서 김남규 특임교수는 음식 콘텐츠별 특화거리 활성화와 전주시 협 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으며, 민동규 사무 국장은 전주의 음식산업이 정책적 연계 와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 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영호 연구위원은 전주 미식벨트 조성과 미식관광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 하며 글로벌 표준화 및 차별화를 강조했 고, 이우석 소장은 전통과 관광이 결합된 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경옥 협력관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음식 혁신과 전문가의 지 속적인 연구, 표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 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강태안 가 스트로투어 대표와 송효근 공주대학교 교수, 신동이 통일부장관실 비서관, 정명 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지부 장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전주의 미식산 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는 예로부터 한식의 본향이자 우리 고유의 미식문화를 가장 잘 간직해 온 도 시이며, 이제는 전통의 가치를 넘어 산업 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지속가 능한 미식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 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통과 현대, 지 역과 세계가 공존하는 미식 창조 도시 전 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정소민 기자

'제15회 2025 전주얼굴없는천사' 축제 개최

24일~26일 노송동 일원 나눔의 미 시민화합퍼포먼스

불우이웃 돕기 위한 '2025 전주 얼굴없는천사'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얼굴없는 천사축제는 올해 로 15회째로서 지난 2000년도에 시작됐다.

특히 '2025 전주얼굴없는천사' 축제는 익명의 기부자들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기리며 매년 노송동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 일까지 3일간 이어지며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 식) 주최로 진행된다.

축제 주요 내용에는 △천사저금 통 퍼포먼스 △글·그림 시상식 △ 비빔밥 퍼포먼스 △노송동, 노송 동, 중앙동, 풍남동, 인후1·2·3동, 진북동 총 7개 천사동 체험부스 △ 문화축제 △공연 △글·그림 수상 작 전시회 등이 운영된다.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는 나 눔의 마음을 널리 알리며 시민·청 소년 등의 화합퍼포먼스로 꾸며진 축제의 장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2025 태조 이성계 오목대 잔치 행사' 개최

25일 전주한옥마을 일원 왜구 무찌른 후 전승기념 잔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기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를 나누던 역사 가 조선왕조 본향인 전주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목대 등 전주한 옥마을 일원에서 '2025 태조 이성계 오목 대 잔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380년(고려 우왕 6년) 9 월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에서 나눴던 전통문화 행사다.

행사는 △황산대첩 무예퍼포먼스(경기 전 앞) △승전행렬(경기전~태조로~오목 대)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



(오목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곁들여 이성계와 이지란, 정몽주 등 특히 전통무예, 판소리와 창작무용 등 주요 인물과 고려 병사, 풍물패, 고취대

등 140여명이 경기전 정문을 출발해 오 목대에 이르게 된다.

이어 오목대에서 펼쳐지는 태조 이성 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는 고유제와 오 목대 잔치 및 연희마당, 포토타임 등 다 채로운 한(韓)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리는 이번 행사를 마 음껏 즐기시고 한국의 문화를 느껴보시 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 시는 앞으로도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노인복지관장 소통가담회 진행

전북지회 소속 20개 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박희수 한 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한 도내 노인복지관장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 현장의 생 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전북의 현실을 고려해 노인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 실 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행정과 복 지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마련됐다. 전북은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복 지관의 역할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 어 건강관리, 정서 돌봄, 지역사회 연 계 지원 등 복합 복지센터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변화 흐름도 공유됐다.

간담회에서는 복지관 운영 경험과 다양한 지역 사례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으며,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이 지

역 어르신들의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협력 모 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복지 수요의 변화, 이용 인 구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세대 간 소 통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복지관이 단 순한 여가시설이 아닌, 지역 어르신 의 생활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 취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 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 관 운영 환경과 어르신 복지 수요 변 화에 맞춰 도·시군·복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 어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가결

천서영 의원 대표발의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3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아동보호구역운



영조례안을 가결했 다고 20일 밝혔다. 등 각종 범죄의 위 보호하고, 안전한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 이번 조례는 유괴 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 험으로부터 아동을 실태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추진 및 겠다"고 말했다. 환경에서 자랄 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천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 해 아동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행

/정소민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원스톱 지원 강화

소담스퀘어전주, 올해 4분기 소상공인 210개사 대상 디지털전환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전 주를 통해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분기 온라인 판 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안 운영하고 있다. 착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과 마케팅 지원 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온라인 판로 지원 부문의 경우 △제품

소개페이지 제작 지원 △롯데온 '소담스 가 보유한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해 정기 퀘어전주' 기획관 운영 △스튜디오 라이 브커머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은 온라인 입점과 판로 확대에 필수적인 제품 사진 촬영과 기획, 연출까지 전 과 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담스퀘어전주는 또 기존 우체국쇼

핑몰과 G마켓 입점 지원에 이어 이달부 터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에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 '소담스퀘어전주'전용 기획관을 새롭게

기획관에서는 소상공인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한 상시 할인쿠폰 제공과 메인 화면 배너 노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소담스퀘어전주

적인 라이브 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는 기획부터 촬영, 쇼호 스트 섭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 이브 방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전 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고 매출 확대의 기회를 얻 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소담스퀘어전주는 소상공 인들이 변화하는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SNS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매·브랜 딩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 한다.

SNS홍보단은 '로컬 트립(Local trip)'

트렌드에 맞춰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소상 공인 점포를 집중 홍보하게 되며, 소상공 인이 스스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라 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소담스퀘어전주는 중소벤 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전 주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 업해 운영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으로,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인프 라 시설 이용과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 '소담스퀘 어전주'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완주소방서,소방공사감리현장교차점검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최 근 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전주시 덕 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소방공사 감리현장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계획'에 따른 것 으로 대형공사장의 부실설계·시공· 감리 방지와 화재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 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지도점 검 매뉴얼'에 근거해 진행됐다.

매뉴얼에는 △소방시설 분리도급 준수 \triangle 무등록(무면허) 공사 금지 \triangle 하도급 제한 △감리자 지정 및 감리 원 현장배치 의무 등 10여 개 주요 점 검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주덕진

소방서는 이를 기준으로 세밀히 확인 했다.

이날 전주덕진·완주소방서의 건축 민원 담당자들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와 감리원 배치상태를 직접 점검하 고, 실제 시공과 감리의 일치 여부, 국 가화재안전기준(NFSC) 준수 여부 등 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허위 착공신고나 기술자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점검 결과 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통 보하고,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 으로 정기적 지도·감독 및 자율안전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응 80명 구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 여름철(5월 15일~10월 15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8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357개소 24,374t의 배수작 업과 455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고 20일 밝혔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 응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 대응 TF팀을 운영해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세부 매뉴얼을 마련 했으며, 상황대책반 상시 가동 체계 를 구축했다.

또 생활안전대원 347명을 대상으로 체인톱 벌목 실습 등 전문 교육을 실 시하고, 대형양수기와 수중펌프 조작 훈련, 수난사고 대비 훈련을 통해 현 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재해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도내

14개 시군 401개 재해 취약지역에 대 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한국수 자원공사 섬진강지사와 협력해 댐 방 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유관기 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17차례 동안 총 1,679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특히 9월 6~7일 전주와 군산 일대 의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대형양수 기와 구조장비를 투입해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고립된 주민을 구명조끼와 로프를 활용해 구조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은 "올 여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 난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 로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전북을 만 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국 최초 '생명존중 119' 전광판 설치

'언제나 생명존중' 시민과 함께

치 확신' 위한 불빛이 전주 야밤에도 비 수 있는 대형 규모다. 쳐진다.

최초 '생명존중 119' 전광판 설치를 청사 건물 상단에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은 '생명존중' 문 속에 하트모양의 119로고를 담았다.

이는 '시민의 생명을 품고 지켜내는 119'라는 소방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가 현한 것이다. 멀리서도 한눈에도 알아볼

심장박동 리듬을 따라 이어지는 조명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전국 효과는 생명이 뛰는 듯한 생동감을 더해, "모든 시민의 생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낮에는 선명한 디자인으로, 밤에는 따 구와 심장박동 리듬을 형상화한 디자인 뜻한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가치 를 일깨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방위산업 첨단 기술력 선봬

'2025 대한민국 전력 지원체계 전시회'참가 기술협력·판로 확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일 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 는 '2025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 (DUPEX KOREA 2025)'에 참가해 전북지 역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세계 34개국 550여 개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 대 규모의 비(非)무기체계 전문 전시회

전북도는 'K-방산, 첨단 신소재·신기 술 실증 전초기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주 제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1전북 홍보관에는 ㈜데크카본, 비나텍 ㈜, ㈜디쏠, 지리산한지(유), ㈜아이팝, 테 라릭스㈜, 하이즈복합재산업㈜, ㈜한백

에어 등 도내 8개 우수 방산기업이 참여 해 Δ 전투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Δ 고출력 슈퍼커패시터 시스템 △수소연 료전지 드론 ΔXR 기반 전술훈련 시스템 등 전북 방위산업의 혁신 기술을 전시할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통 해 드론·무인체계 중심의 전북 방산 생 태계 구축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민· 군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상담회를 병행

해 실질적인 기술협력과 판로 개척의 기 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전북 은 첨단소재와 복합소재 분야의 우수 기 술력을 바탕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 정의 최적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전시 기간 중 전시회를 계기로 전북 방위산업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고, 도내 기업의 국방조 달 시장 진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AI부터 로봇까지 '제19회 전북과학축전' 성료

110여개 프로그램 운영 호응 혁신제품체험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 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가 주관한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지 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대학교 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어 린이창의체험관에서 개최되던 과학축 전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공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장 전역에 설치된 110여개의 과 학체험부스에서는 일상 속 과학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 램이 운영됐다.

드론·로봇 실습, 환경·에너지 실험, 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화학·물리 원리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 가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 전북의 주력산업인 AI, 바이오, 이 차전지, 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전북핵 심산업관'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의 연 구성과와 도내 기업 혁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의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 행된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로봇경 진대회를 비롯해 사이언스 마이크, 에 그드랍 챌린지 등 다양한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됐

야외 공연장에서는 사이언스 일루 전, 버블랩쇼: 공기의 마법, 솜사탕 퍼 포먼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마술공 연 등이 펼쳐져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 게 과학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

또 이번 축전에서는 현장에서 참여하 기 어려울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활성화'의 일 환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400여



개의 과학꾸러미(체험키트) 나눔 활동 도 진행됐다.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은 2만여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행사 장을 직접 방문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 하고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우승팀

에게 시상했다.

이어 "과학의 발전은 오늘 이 자리처 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과 정"이라며 "전북과학축전이 우리 청소 년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5 북전주농안입용조안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북전주농협, 지역 배 50톤 대만 수출

올해 첫 대만항 매년 물량↑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0 일 북전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 약 50톤을 대만으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량으로 본격적인 해외 출하의 시작 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수출된 배는 북전주농협 관내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다.

환경 속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과 육이 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산 배 의 품질과 신뢰도가 높아, 매년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우리 지역 배가 이번 수출은 2025년 첫 대만항 물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농가 의 소득 향상과 지역 과수산업의 경 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 /김영태 기자



농진청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대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원예·특 용삭물 문야 '2025년 죄고품실 농산물 생산단지' 7곳을 선정했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촌진 북특별자치도 고창군)가 선정됐다. 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하 고 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품 종을 재배·출하하며 우리 품종의 재배 를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 하고 있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 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으로는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아산시배연구회(충청남도 아 산시) △영천국내신품종사과연구회(경 상북도 영천시) △고창군수박연합회(전

이어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 연천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경기도 연 천군) △청주시딸기연구회(충청북도 청 주시) △익산딸기연구회(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가 받았다.

올해 대상을 받은 논산수박연구회영 대상(국무총리상)은 충남 논산의 '논 농조합법인(1999년 조직)은 2014년 전 정된 연구회원들을 주축으로 후계농에

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체계적 인 생산·유통관리와 품질 향상에 힘쓰 며 당도 높은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수박 가격 하락 시 자조금을 활용해 일성 금액을 보선함으로써 회원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차별 정산제'를 도입해 생산자 간 건전한 경쟁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 논산농업 대학 수박학과 개설을 적극적으로 제안, 올해부터 신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최고기술농업인'으로 선

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 국 최초로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농 게 실질적 재배 기술과 경영 역량을 지 도하고 있다.

> 이 밖에도 광폭형 자동보온시스템, 높 은 두둑 조성, 토양 분석 처방 후 시비 관리 등 새 기술 도입·확산으로 과학영 농을 실전하고 있으며, 신품송 육성·도 입을 위한 재배 실증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 기반을 다지 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 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 사례를 거울삼아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를 확대하고 우수성 홍보 노력을 꾸준 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 /정소민 기자

'신협발전세미나' 개최 과거·현재·미래 조명

래를 조명하다(The Past, Present and 자산 규모를 제시했다. Future of Credit Unions)' 주제로 2025 년 '신협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협의 성장 요인과 지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신협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적정 자산 규모와 포 트폴리오 운영 선략, AI 활용 방안 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협의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난 17일 신협 임직원 200 여명과 함께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 강당에서 열렸다.

협 특성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 제시' 를 주제로 신협 자산 구성 현황을 분석 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했 장, 지역 소멸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 다.

이어 경성대학교 김성태 교수가 '신 협의 성장요인과 적정 자산 규모'를 주 다"고 말했다. 제로 신협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

신협연구소는 '신협의 과거, 현재, 미 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이후 경상국립대학교 윤상필 교수는 '로컬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협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소멸 시대에 로 컬창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신협이 상생할 수 있 을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나형종 교수 는 '신협의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신협 을 위한 네 가지 AI 예측 모형을 소개하 고 향후 과제와 적용 방향을 설명했다.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는 "이번 이날 동국대학교 현정환 교수가 '신 '신협발전세미나'는 신협의 과거와 현 재를 돌아보고, 미래 경영 전략을 모색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령화, 저성 서 중앙회와 조합이 함께 지혜를 모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

/김영태 기자



LX,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발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지난 3월 해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임금협상을 진 면서 장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채산제형 공공기관으로서 최근 지적측 량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2023년 716억 (매출액 5357억), 2024년 822억(매출액 5140억)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출되는 구조로 영업적자분에 대해서

공사는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 2023 행해왔지만 노동조합이 결렬을 선언하 년 11월 30일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4 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비용 절감, 공사는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독립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에 관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600억원 내외, 내년에는 400 억원 내외로 영업적자를 줄여나갈 계 획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지속적으 로 소통하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 특히 공사 매출은 대부분 인건비로 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 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는 은행 대출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성장사다리선도기업㈜팜조아,누룽지2만봉기탁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기업인 ㈜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이 따 뜻한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팜조아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3천만 원 상당의 누룽지 2만 봉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했다. 이번 성품은 도내 장애인 등 취 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팜조아는 2015년 설립 이후 배, 밀키

트, 소불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10년 째 꾸준히 사회에 공헌하며 기업의 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사다리 선도 임을 다하고 있다.

황은경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 사회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라며 "앞 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 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팜조아 의 정성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 는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고 도민이 최근 코스트코와 계약해 지역 경제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산업 내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진 ㈜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제종자박람회, 22~24일 김제서 개최

종자산업 중요성·가치 알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제시와 함께 '2025 국제종자박람회' 를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 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 을 주제로 열리며, 종자산업의 중요성 과 미래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 다. 정이다.

맞은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 자 전문 박람회로, 종자산업의 기술 교 류와 수출 확대를 견인해왔다. 이번 박 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7개 기업・ 기관·단체가 참가해 482개 품종을 선 표로 한다.

박람회장은 전시포, 산업관, 온실, 홍 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관 등으로 구성돼 작물의 실물 전시

와 산업 전시가 함께 이뤄진다. 전시포 에서는 국내외 종자기업이 개발한 우수 품종을 노지와 비닐온실에 전시해 관람 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관에 서는 종자 관련 전후방 산업과 최신 기 술을 소개한다.

또한 B2B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 올해 박람회는 '씨앗 하나, 세상을 바 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컨퍼 런스·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통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

부대행사로는 고구마 수확체험, 화분 2017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를 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 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는 "2025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 발전과 글로벌 교류를 이끄는 중요한 보이며, 80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목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종자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

/정소민 기자

고교생 흡연 징계에 학부모 "내가 허락했다"

교원단체 "학생 생활 지도 방해…교육 현장 근본적인 위기"

흡연을 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 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 조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의 한 교사 가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해당 학교 인 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학생들을 면담해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 연 사실을 통보했다.

장에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넘 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은 교 시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 "학교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를 엎어주겠다"등의 말로 협박성 발언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는 학생을 생 활지도한 교사가 몇 학번인지를 묻는 등 개인 신상을 집요하게 물었고, "조만 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로 사실상 보복 을 암시했다.

> 이후 그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시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악화됐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

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 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 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A씨 역시 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시를 앞두고

해당 학부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학교를 상대로 반복 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빚은 사 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청은 피해 교시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 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할 것" 과 함께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입장을 밝히고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 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 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이어 "해당 학교는 학생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 을 일삼은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 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과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 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스포츠클럽, 전국체전 모두 입상 쾌거

태권도 선수단 13위 차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4~18 일까지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종목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 전북 태 권도선수단은 금 1(이소영, 전주스 포츠클럽) 은 1(이율, 군산동고) 동 4(김근영-전북체고, 손태환-한체 대, 예한병-전주대, 정유나-우석대) 등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주스포츠클럽에서 훈련한 여고부 -67kg급 이소영 선수가 1 위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스포츠클럽은 올해 전국소년 체전에서 금 1 동 1(-6kg 문지담 1 위 / -4kg 정희수 3위)를 각각 차지 하는 등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에서 모두 우승 입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전주스프츠클럽 태권도 지 도자인 문형효 코치는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노력의 결과가 전국체육대회 1위,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와 3위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선수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지도자와 선수들 간 서로 신뢰와 믿음의 계단을 쌓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 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엘리트 선 수의 산실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 을 다하겠다"며 강한 자신감과 의욕 을 보였다.

이소영(전주스포츠클럽)선수는 "문형효 코치의 평소 훈련과 지도를 성실하게 소화하며 나름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1위를 했다"며 "국가대 표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겠다" 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 교원 학생평가 신뢰 회복·전문성 강화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 교원 성취평가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평가 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질 제고에 나섰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 도 성취했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 를 강조하는 평가제도로, 학생이 성취한 내용과 정도를 사전에 설정한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 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 중등 성 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 다. 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 교사로 구성된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40명 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학교 현장의 성 취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7월 광주, 전남, 전북 연합으로

진행한 역량강화 기본 연수에 이어 지 난 14일과 18일에는 대면방식으로 심화 연수와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를 진행했

심화 연수에서는 △성취평가 모니터 링 지표의 이해와 분석 △사례 기반 실 습을,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에서는 △단 위학교의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다루었다.

강사로는 서원석(전주솔내고) 교사,

박지은(경북 상모고) 수석교사 등이 참 여해 성취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성취평가 모 니터링단이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위학교의 평 △모니터링 실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 내실화 및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전북현대, 파트너데이로 하나되다

2천여 명 전북대 구성원 응원속 10번째 우승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도현)이 지난 주말 '파트너데이'를 통해 하나 된 열정을 보 여줬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수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경기가 전 오봉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외 국인 유학생 등 2,000여 명의 전북대 구 성원들이 대거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쳤다.

뜨거운 응원 열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사전 행사로 전북대 홍보 영 상이 상영됐으며, 개교 78주년을 상징하 는 등번호 78번을 단 유니폼을 입은 양



오봉 총장과 구민기 총학생회장이 시축 을 맡아 경기 시작을 알렸다.

전북대 구성원들은 전북현대의 상징 인 녹색 유니폼을 맞춰 착용한 채 응원 가를 함께 부르며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선보였다.

이날 전북현대는 콤파뇨와 티아고 선 수의 연속골로 2대 0 승리를 거둬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전북대학교 파트너 데이에 기쁨을 더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학부모지원센터 'AI와 함께하는 캠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 터는 오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군산·익산·남원·정읍 등 5 개 권역에서 '2025년 아이(AI)와 함께하 는 캠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진로·학습 탐험'이라는 부제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AI를 활용해 미래 진로 를 탐색하고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세워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향·강점 진단 △가족 단위 AI 게임 △자 기주도학습 설계 실습 등이 있다.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지는 "AI를 활용 한 가족형 진로캠프는 미래교육 시대 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학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 발표

2026년 1월 이후 임용 발령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교육행정 21명, 식품위 생 1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2명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 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 자로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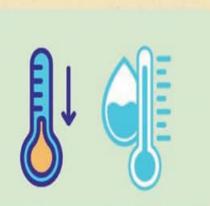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보 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

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승진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 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한 선발" 이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 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 발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3 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 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임용 될 예정이다.

5급 승진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직렬 강세지(총무과), 강여경(위 도고등학교), 고수미(행정과), 김한철(학 생해양수련원), 김형진(한국전통문화고 등학교), 박인화(전주솔내고등학교), 백운 기(한울학교), 소정현(부안고등학교), 손 은성(선수화성조능학교), 송구(성읍고능 학교), 송효미(마령고등학교), 오은진(고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5급 산고등학교), 유병현(함열고등학교), 이천 미(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임인옥(예산 과), 전태종(전주유화학교), 정원탁(도의 회사무처), 정유신(전주고등학교), 채윤경 (재무과), 최판식(총무과), 허수진(예산과) △식품위생직렬 한근영(익산교육지원청) 총 22명이다. /최성민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C,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30초이상 손 씻기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 합니다.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군산시, 지역 예술인·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지 역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 인 · 예술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 군산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 사 및 기초자료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예술 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의 현황을 체 계적으로 조사·정리해,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상은 최근 군산시에서 전시·공 연·창작 활동 또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지 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단체와 군산 시 소재 문화예술공간이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재단 누리집에서 신 청서를 내려받아(www.gunsancf.or.kr), 전 자우편(ssaesol@gmail.com)으로 제출한다. 혹은 바로가기 부호(큐알코드)를 통해 신 청하면 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 된 이후에도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 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열린 참여형 시스 템을 운영해, 참여도를 높이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예 술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서로 연결하는 중 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예술인·예 술단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 채권 압류…체납 지방세 징수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 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 (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 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 진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 익·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 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 고,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새로운 채권 발 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농·축협, 구절초 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지난 18일 '제 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현장에서 고향사 랑기부제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와 농·축협은 축제를 찾은 수많은 방문 객을 대상으로 기부제 동참을 독려하며 지 역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의 대표 가을 축제 현 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 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됐 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 장과 관내 8개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떡 과 식혜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 부제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 며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정읍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 하고, 정읍의 발전에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출향인, 관광객 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대도시권 도약 발판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시행령개정 핵심사업추진탄력기대

익산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로 대도시권에 포함되 며,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 판을 마련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 의 대광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지난 14 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의결돼, 익산시를 포함한 전주·군 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익산시는 대도 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철(철도) 구축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 낸다.

을 전망이다.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은 익산~ 전주~군산~새만금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 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으 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한층 원활히 해 광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 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 획이다.

성되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여객·화 물 병용 철도수송 체계가 구축된다. 이 를 통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와 국 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K-식품 벨트' 완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경제권을 주도하 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주 여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전 건 개선과 산업 영역 확장에도 속도를

전북권을 대상으로 하는 △KTX익산 역 시설개선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 사문화벨트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물 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국 가예산 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조 러 국가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 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 정은 익산시와 전주권이 하나의 생활 권,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련 국가예산 사 업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 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나라 On 자활 상생일터' 개소

옛 흥남파출소 리모델링 전북서 세 번째로 열려

군산시 흥남동 (구)흥남파출소를 리 모델링한 '나라 On 자활 상생일터(상호 카페보네 346)' 개소식이 20일 개최됐 다.

'나라 On 상생일터'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캠 코가 유휴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사 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캠코는 지난 2023년 '나라On 시니어

일터(부산 사상구)' 1호점 개소를 시작 으로 전국의 유휴 국유재산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군산 일터는 전북에서 전주시, 다. 임실군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으 며,군산시 강임준 시장,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 정정훈 사장, 전국자치도,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가 협력해 취약계층 자활사업장으로 조성

또한, 캠코에서는 (구) 흥남파출소 리 모델링 공사비 부담 및 기부금 1천만 원도 지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에 감사드 리며 이번 자활 상생일터 개소에 힘써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

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마중물로써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 는 "군산시의 '나라 On 자활 상생일터' 개소를 축하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 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자활사업 모델로 정 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2일 '주얼팰리스 보석 축제' 개최

54개 업체 참여 전시판매 보석산업경쟁력·가치제고

보석 산업 중심지 익산에서 형형색색 펼쳐진다.

지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관 광지 일원에서 '2025 주얼팰리스 보 석 가을대축제'가 열린다고 20일 밝 혔다.

이번 행사는 (사)주얼팰리스협의회 (회장 송재규)가 주관하고,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축제에는 주얼팰리스 내 54개 업체 가 참여해 다채로운 전시와 판매,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보석대축제는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 형 산업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화 려하고 진귀한 보석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24K와 다이아

몬드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0% 특별할인 행사가 진행돼 평 소 귀금속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한 보석을 원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보석 리세팅'을 비롯해 보석 가공 시연, 체 익산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 험 부스, 익산보석산업 사진 기록전, 행운의 탄생석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아울러 축제가 진행되는 보석테마관 광지는 보석박물관과 실내·외 놀이체 험시설 다이노키즈월드가 있어 부모 부터 자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을 나들이도 즐길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싸주얼 팰리스협의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축제는 익산이 지닌 보석산업의 경 고 말했다.

이어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과 관광



객 모두가 반짝이는 추억을 만들길 바 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는 매 익산시 관계자는 "주얼팰리스 보석 년 봄·가을 두 차례 왕궁보석테마 관 광지 일원에서 열리며, 산업과 관광이 쟁력과 가치를 동시에 알리는 자리"라 어우러진 익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서 개최 즐길 거리를 새롭게 보강했다. 현존 최고(最古)의 백제가요 '정읍 사'를 기리는 제36회 정읍사 문화제 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사

'정읍사 문화제' 25~26일 펼쳐져

올해는 제18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열리는 데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시민과 관 광객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전망이

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

정읍시와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 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채수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기념 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 전통 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축제의 열기를 더할 화려한 공연 도 준비됐다. 25일 기념식 축하공 연에는 설운도 김다현 등 인기 가 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26일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 명의 본선 진출자가 경연을 펼치는 '정읍사가요제'가 열리며, 초청가수 송가인·이미주가 수준 높은 공연으 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해 이번 문화제를 마련했다"며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 광객이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고, 정읍의 위상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무녀도서 어촌 섬마을 장터 연다

군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 어 숙회 등 풍성한 먹거리로 구성된 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일원 부스도 운영된다. 에서 어촌 섬마을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지역수산물의 소비 촉 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 족 단위 참가자와 어린이에게 즐거움 업이자 무녀도어촌계와 주민이 참여 하는 주민주도형 행사이기도 하다.

특히 행사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군산 어촌만의 특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품과 수산물이 판매되고, 해물 부침개, 것이다"라고 말했다. 꽃게튀김, 소라무침, 해물꼬치, 갑오징

또한 갯벌 체험, 섬마을 보물찾기, 추 억의 놀이존, 팝콘·솜사탕 부스 등 가 을 더할 특별한 체험거리도 더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 번 행사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군산 의 고품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 색을 살리고, 섬마을의 정을 느낄 수 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군 산 수산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넘어 행사 기간에는 바지락, 꽃게장, 반건 서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 화합의 장, 조 생선, 각송 첫갈류 능 섬마을 특산 어존문화를 공유하는 교류의 상이 될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달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제도 정착·유기동물 발생 예방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 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사육 중인 생후 2개월령 이상 개의 소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 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 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 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유자다. 시와 협약된 동물병원에 직접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 방문해 신청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읍천, 근 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 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 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인구주택총조사 적극 참여 당부

22일~11월 18일까지 1만 6천여 가구 대상 실시

정읍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 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했다. 다.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이번 조사는 관내 1만 60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정읍시 관내 371개 표 본조사구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과 거처를 파악한다.

대한 55개 항목이다.

시는 조사 대상인 1만 6100가구에 지난 10월 중순 '총조사 대상 가구'로 명시된 조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22 일부터 인터넷(PC·모바일)이나 전화 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를 시작한다. 이 기간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조사

조사를 마친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조사 항목은 인구·가구·주택 분야에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 주화 또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 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100년이 되는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파 악해 정책 수립·평가, 학술 연구·기업 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지역주민이자 이웃인 통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 계조사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협조 해 주시고, 인터넷·전화 조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와 관련해 궁금 한 점은 정읍시 통계조사 종합상황실

익산시, 농업용 굴삭기 임대료 지원

익산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3 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임대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로 논·밭 배수로 정비, 과수원 개간 등 굴삭 작업이 필요한 현장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해 임대하는 대신 민간 임대업체를 활 용해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 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식은 농 가의 실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함과 동 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지원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3톤 미만 굴삭기 조정 면허 증을 소유한 자로, 3톤 미만 굴삭기 임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 대시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일 20 만 원까지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 임 대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이에 익산시는 굴삭기를 직접 구입 과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며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효율적인 농작업을 실 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타임스

부안,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 참가

세계도자중심무대서 상감청자이름다움알려 국제교류협력기반마련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16일부터 오 는 25일까지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중국 경덕 진 국제도자박람회에 부안청자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50여 개국이 참여 하는 국제 도자 축제로 도자산업과 예술 교류의 중심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려청자의 본향 부안에서 재현한 상감 청자와 실용청자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세계 도자예술의 최신 흐름을 파악해 향후 청자산업 발전 및 문화 교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박람회 기간 중에는 부안 도자문화 홍보, 해외 바이어 대상 판로 개척, 중국 도자기관 및 작가들과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무형유산보유자 사기장 청자 재현 작품과 부안관요 청자 상품, 부안도예가협회 회원작품 및 박물관 뮤 지엄샵에 입점한 도예 작가들의 259점 의 다양한 청자 작품을 선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국 경덕진은 세계 도자예술의 중심이자 기술 교류의 장'

이라며 "부안청자가 고려 상감의 정수 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도자 예술과 산업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 참 가를 계기로 부안 상감청자의 전통 계 승과 국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도자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 이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가을배추 생육관리 철저 당부

강우일 / 병해충피해우려 현장예찰활동강화

고창군 농정당국이 초가을 잦은 비로 가을배추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면 서, 생육관리와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 15일 까지 강우일수가 25일에 달할 정도로 잦으며 평년 대비 강우일수가 7일 늘 고, 일조량은 7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기후로 고창에선 가을배 추 무름병,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 위험 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 면 작목반과 대규모 재배농가와 협력 해 현장 중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 속한 방제와 예방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름병과 노균병은 과습한 환경과 배수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꼽

노균병은 잎에 회녹색반점이 생기며 점차 황화되고, 심하면 잎이 마르거나 포장 전체가 누렇게 변색돼 상품성이 떨어진다. 무름병은 초기에는 일부 식 물체에만 국한되지만 결구기 피해 시 결구가 불량하거나 속이 썩어 상품가

치가 떨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식시 통풍 이 확보되도록 정식거리를 유지해주고 질소비료 과다시비를 금해야 한다. 또 한 발생 초기에 등록약제의 적기살포 가 중요하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 속된 강우와 흐린 날씨로 농작물의 활 력이 떨어지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며 "병해충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철저 한 방제를 당부드리며, 방제 시 농약 안 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 '호응 속 성료'

32명의 단원 참여 태평소 시나위 등 선봬

부안군립농악단은 지난 17일 오후 6 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 회를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고풍감래(鼓風甘來)' 즉 '북소리와 풍 악으로 즐거움이 찾아온다'를 주제로 열 린 이번 발표회는 32명의 단원이 참여 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예술성과 기량 을 선보였다. 예종과 대고·모듬북 '태고 의 울림'을 시작으로 태평소 시나위, 부 안농악판굿, 개인놀이 등이 이어지며 관 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함께 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히 버나·죽방울놀이, 부포놀이, 설 장구놀이, 12발상모놀이 등 다양한 개인 놀이가 무대를 가득 채웠으며, 마지막에 는 대동뒷굿으로 단원과 관객이 함께 어 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농악은 과거 호흡하며, 더 큰 울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무대가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흥겨운 가락 속 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창단된 부안군립농악단

은 부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며 일상 속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대중화에 힘쓰 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전주대시습놀 이 전국대회 은상, 김제지평선 전국대회 동상 수상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 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 역을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대응 '총력'

예비계획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주요과업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는 논의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공모)에 대응 최했다고 밝혔다.

술센터소장 주재로 스마트유통과장, 다. 스마트팜관리팀장, 스마트정책 담당 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계 구축과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동력

합에서는 장현욱 실장, 이유정 연구원

주요 과업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 성지구 지정 대상지 검토 및 입지여 회는 김제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원 확 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 건 분석,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반 보와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 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 확대 방안,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 리 기능연계 방안, △스마트농업 육성 이번 착수보고회는 강기수 농업기 지구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앞으로, 시는 스마트농업 창업생태 델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 받아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하 등 3명이 참석해 김제 미래농업 성장 고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스마트 을 견인할 주요 과업에 대한 심도 있 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 는 방침이다.

>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착수보고 라며, "앞으로, 김제시가 스마트팜 기 반의 농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고, 새만금과 김제 농생명 자원의 이점을 살려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표준 모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소통·협업 중심 문화 강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3 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부안군 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 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계기 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중심의 리 더십 문화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이번 교육은 7급 공무원 207명 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됐으며 군 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행정 을 이끌어가는 실무 리더들의 소 통·협업 역량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형 리더십 과정으로 운



정화영 부 군수는 "이 번 교육은 부 안군 행정의 중추인 7급

로의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이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정화영 부안부군수 공무원들이 조직의 연결 고리이자 변화의 촉진자로 성장하 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지역 청소년 소리꾼 공연 '눈길'

고창군 도시재생사업지인 조양관에 서 고창지역 청소년들의 국악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리치유관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고창지역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무 대에 오른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고창 판소리 전수관에서 어린 시절 부터 수련을 이어온 학생들이 성장해 이제는 국악 전공의 길을 걷는 예비 예술가로서 자신들의 소리를 당당히

선보였다.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는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공간에 공연은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인 소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문화를 만들 어 즐기는 이 과정이야말로 도시재 생사업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잇고, 주민과 학생, 예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 있는 문 화 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읍 기관사회단체協, 환경정화 활동 전개

고창군 고창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회장 이길수 고창읍장)가 지난 16일 문화의전당 주변과 전통시장 입구 하 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전에서 환경성화 활농을 펼졌다. 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 회 단체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모 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30여 명이 참여해, 문화의전당과 전 말했다.

통시장 입구 하천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환

이길수 고창읍장은 "바쁜 일정에도 제52회 고창모양성제를 앞두고 고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해 주신 기관사 기관사회 단체장과 고창읍 직원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고창=백종규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부안군, 교류 확대

회원 50여명 고향 방문

민회(회장 고석곤) 회원 50여명은 지 의 특별한 정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최 난 18일 부안군을 방문해 제5회 고향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찬장에서 개회를 시 작으로 내빈 소개, 고향사랑기부금 에서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으 500만원과 소외계층 장학금 150만원 기탁, 유공 회원 감사패 및 공로패 시 상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오 찬 후에는 부안군 명소를 관람하는 부금과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것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석곤 회장은 "따뜻한 고향의 정이 실천이기에 회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다"고 전했다. 하며, 부안군민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지속적 경기도 용인특례시 전북특별자치도 인 교류를 통해 부안군과 용인특례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

> 권익현 부안군수는 "바쁜 일정 속 로 부안 방문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고 석곤 회장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시를 드리며 특히 고향사랑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애향심의 숭고한

> > /부안=신상수 기자



용천건설·써미트지역아동센터 고창군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지난 17일 (유)용 천건설(대표 박운주)이 200만원, 써미트지 역아동센터(센터장 김앵자)가 77만원의 장 학금을 전달하며 고창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박운주 용천건설 대표는 "지역의 성장 동 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며 "이번 기탁이 학생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앵자 써미트지역아동센터장도 "아이들 이 건강하게 배우고 자라야 고창의 내일이 밝아진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서 교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심덕섭)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 탁해주신 장학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 용해,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총 19팀·180명 청소년 참가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 청소년복지센 터가 주관한 제11회 부안 청소년 풋살대회 가 지난 18일 부안스포츠파크 풋살 전용구 장에서 개최됐다.

2025년 부안군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 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궂은 날씨에도 불 구하고 가을 즐기며 청소년의 패기와 열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능무 2팀, 숭능무 9팀, 고능무 8팀 능 종 19팀 180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가해 열 정과 우승을 향한 패기 있는 모습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참 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청 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놀거리 문화를 제 공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건 전 놀이문화를 발굴해 건전한 정신을 심어 주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최선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시민참여형생태프로그램 '방장산생물다양성탐사'성료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9일 방장 산 일원에서 개최한 '고창 방장산 생물다양 성 탐사 대작전'을 80여 명의 참가자와 함 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의 생 물다양성을 직접 탐사하고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고창 방장산 일대를 중심으로 식물・곤 충·조류·포유류 등 4개 분야별 현장 탐사 와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전문가와 함께 방장산 탐방하며 식물·곤 충·조류·포유류의 생태적 특징을 관찰하고 직접 생물종을 기록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방장산의 생태적 가 치를 체험하며 지역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탐사에서 얻 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방장산 생태자원 의 활용과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시, 드론·로봇 미래산업 중심지 부상

19일 남원국제드론제전 성료 국내외 신기술·체험 축제 융합 청소년·가족 참여형 축제로 발전

남원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 봇'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내 드론· 로봇 산업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남원시 공 동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안전 기술원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하늘과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산업, 문 개최됐다.

일원에는 드론·로봇 스포츠대회, 산업 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행사장 주변 상권과 숙박시설에도 활 기가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 수학체험교실, 긱블 청소년 토크콘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 <사진=남원시>

축제 기간 동안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드론 수색·방제대회는 현장형 기술교 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드론·로 관이 참여해 자율비행, 배송, 영상촬영,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 이며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남원교육지원청 주관의 과학축전 및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 체험, 교육이 융합된 복합형 축제로 회에 20여개국 50여명이 참가했으며 트, 핑크퐁 팝업 놀이터, 글로컬 푸드 G-PRC 드론로봇대전과 시민참여형 페스티벌 등은 남원의 '참여형 가족축 제' 이미지를 확립하며 남녀노소 모두

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했다. 남원시는 제전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 부터 국제 드론스포츠 챔피언십 정례 화, 드론실증 연계 기업유치 프로그램, 청소년 드론캠프 확대 운영 등 후속사

/남원=정하복 기자

이상현前 도의회 부의장, 남원시의원 출마 선언

민생·복지·농업·교육 비전 제시 송전탑 백지화 등 해결 의지

이상현 전)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도통·향교지역 남원시의회 의원 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남원의 미 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생경제는 든든하 게, 복지는 따뜻하게, 농업은 활기 차게, 교육은 안전하게'라는 4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남원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는 믿음 직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

원시장에 두 차례 도전하며 남원 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지만, 돌이 켜보면 제 욕심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



다고 밝혔다. 이어 "구)서 남대학교 활성 화, 공공의료 대학원 및 제2

중앙경찰학교

민과 함께하겠

이상현 前부의장

유치, 송전탑 건설 백지화 등 남원 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 해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현장 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해법 을 만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

남원 토박이인 이상현 출마예정 자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 출생으 로, 남원중앙초·용성중·남원고를 그는 "전북도의원으로 12년, 남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3선의원으로 활동하며 부의장, 교육위원장, 운 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남원=정하복기자

완주군의회 행감특위 출범…이경애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 최광호 위원 11월 정례회 맞춤 감사 진행

완주군의회는 20일 2025년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애 위원을, 부위원장에 최광호 위 원을 각각 선임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활동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치법' 제 49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 사무 전반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 성 여부 등을 감사해 개선이 필요한



이경애 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행정책임성 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경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동 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 11월 실시될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 정의 책임성과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 한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보부상 마켓'으로 들썩

90여개 마켓 1만 3,000여 명 방문 로컬푸드·핸드메이드 등 향연

완주군이 '2025년 보부상 with 완주 농부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삼례문화예술촌에 서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 90여 개의 마켓이 참여하고 1만 3,000여 명 의 방문객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과실생 산협동조합, 완주농가 등이 직접 생산 한 신선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핸드메이드 의류, 밀키트, 생활소품 등 다양한 수제품이 판매됐 객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의 장 서, 완주군지역자율방재단, 수소에너지 다.

특히 행사 양일간 선착순 100명에게 픈런'이 펼쳐지는 등 뜨거운 현장 열기 를 더했다.

행사는 완주군의 신선한 농특산물 직 끌었다. 거래장과 가공 식품 등을 전국의 방문

19일성료남원도자문화매력알려

전시·물레경진대회등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

고 (사)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가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

결 남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난 19일 폐막했다.



완주군은 지난 18·19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보부상 마켓을 개최했다. <사진=완주군>

개막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 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준혁, 단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작가 116명이 위원장은 "이번 캠프가 국내외 도예가

참여하여 전시회와 물레경진대회 등 8 분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남원국제도예캠프의 대미를 장식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단국대학교 김성현, 최우수상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태 남원시의회 의장 등 주요내빈 100여 국대학교 배영원이 각각 수상했다.

을 마련했다.

연계행사로는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투어'를 비롯해 삼례책마을에서 열린 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

군은 행사 전 완주경찰서, 완주소방

남원국제도예캠프, 국내외 작가 116명 참가 '성황'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원 도자 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키기 위해 진행된 제14회 남원국제도 생 및 대학원생, 캠프 참가자, 일반 도 향이자 도자의 고장인 남원에서 국제

주관한 제14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지 개의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 물레경진대회에는 전국 도예전공 대학

도예캠프는 지난 17일날 개막했으며, 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윤준상, 우수

예캠프는 '흙에서 피어나는 도예의 숨 예작가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고등학교, 우석대학교, 자원봉사자 등 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통제와 안전 점검을 실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 진행돼, 행사장 입구에서 '2미터 오 북플리마켓(중고책·어린이 장난감 판 행시를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삼례 방 촌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와 협조 속에 '안전하고 친절한 완주'의 이미지를 알렸다.

국제도예캠프를 준비한 김광길 운영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남원 도자문화

의 역사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최경식 남원시장은 "심수관가의 본

도예캠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김명곤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장류축제서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노정희 작가 초대전

농심천심 운동 확산 '앞장'

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 군에서 개최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에서 관내 농협이 생산한 우수 농산 물을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또한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 문객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장류식 품'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순창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고, 축제장을 찾 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 은 모든 방문객에도 즉석 추첨, 다트 게임(한궁) 등을 통한 농산물 제공 이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농 벤트도 진행해 농산물 홍보는 물론 협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

대추, 동계농협 햅쌀 및 옥광밤, 구림 농협 눈꽃복숭아, 서순창농협 복분자 즙과 동계쌀을 원료로한 순창 발효쌀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 3종 등 순창군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 리고, 벽돌형 포장쌀, 쌀과자 등을 사 은품으로 제공하며 쌀소비 촉진 캠페 인도 전개했다.

> 구림농협(조합장 김순용)은 눈꽃복 숭아 시식, 예약판매를 함께 하며 방

신종철 지부장은 "순창 전통 발효식 품과 우수 농산물을 통해 농업의 가 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다" 으로서 순창 장류식품이 농산물 소비 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추첨 이벤트 등 행사 다채

심 운동' 확산에도 앞장섰다.

축제의 흥행에도 기여했다.

군지부는 행사에서 순창농협 사과

순창군, 제29회 추령장승축제 기념 특별전시 개최

솟대·장승·봉황3종 전시 한자리 회화·목공예·사진 융합예술선봬

서 열린다.

인 3색 3종 초대전'이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추령마을 문화센터인 추령문 화촌에서 개최된다.

공예·사진 등 3개 분야의 융합 전시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여준다.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준 높은 작품들 이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예 재산업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솟대 작 작가의 퓨전 장승 사진전도 함께 열려 술 전시회가 내장산 자락 추령마을에 품 33점을 비롯해, 봉황 작가 신경미의 100호 대작 11점을 포함한 봉황 회화 제29회 추령장승축제를 기념하는 3 33점이 전시되어 장쾌한 스케일과 상 징성으로 깊은 인상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장승 명인이자 솟대 목공예 장 인인 추령장승촌장 윤흥관 작가의 목 이번 전시는 솟대, 장승, 봉황이라는 공예 작품과 봉황 회화의 대가 신경미 전통 상징 요소를 중심으로 한 회화·목 작가의 대형 회화 작품이 어우러지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 초암, 금보라, 방실이 등 대중가수들이

아울러 추령장승축제 30년의 발자취 를 기록한 장승 사진과 함께, 현대적 해 전시에는 지난 8월 열린 대한민국 목 학과 익살, 조형미가 돋보이는 이익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색다른 예술 적 분위기를 선사한다. 솟대, 목공예, 회 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가을 바람을 타고 추령 하늘을 수놓는다.

> 전시 오프닝은 오는 25일 오후 6시 추령문화촌에서 진행되며, 오후 7시부 터는 식사와 주안상을 곁들인 작은 음 악회가 마련된다. 음악회에는 최재철 출연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기획전시실서 내달 21일까지

전통 정서 현대적 해석 지역 작가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21 일부터 노정희 작가 초대전 '시간 속 에서 - 만남, 내일은 희망'을 개최한

이 전시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새 로운 창작의 무대를 열어주며, 완주 군민이 예술을 통해 작가의 메세지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 을 여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의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노정 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의 작 열린다.

품 속에는 생명의 절정과 환희, 그리 고 미세한 생명에서 우주로 확장되는 순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이 위로와 희 망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정희 작가는 완주군에 거주 하며 국내외에서 330여 회 이상의 전 시를 이어왔고, 현재 '아뜰리에 AUL' 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완주의 예술 가로서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 망을 전하는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완주=김명곤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한복체험 '케데헌 열풍' 타고 큰 인기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기간 동안 관광 안내와 함께 진행된 한복체험 부스가 축제 장을 찾은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한복체험 부스는 큰 인기를 끌고 있 는 케데헌 컨셉으로 기획해, 참가자들이 무 료로 한복체험과 전통 갓을 착용하고 사진 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꼬마갓과 풍 선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어 축제의 즐거움 을 더했으며, 밝은 웃음과 함께 사진을 찍 는 모습으로 북적였다.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운영된 한복체험 부스는 가족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 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여형 가족 축제 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 "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생활예술인 창작열 전시로꽃피다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네트워크(이 하 완주생문동)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1 오는 30일까지 완주군 문화예술단체 전시 실에서 '제14회 완주생문동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5 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전북특별자 치도가 주최하고, 완주생문동과 선정된 동 호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시 작품은 △U도자기(도예) △꼼지락 동아리(토탈공예) △차차(토탈공예) △투 맘(소이퀼트) △힐링에코(원예) 동호회의 다양한 공예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시된 작품들은 지역 내 홀몸어르 신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상배 완주생문동 이사장은 "취미 활동 으로 시작한 동호회가 여가 활용과 삶의 활 력소가 되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했다" 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완주군민들이 생활 문화동호회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 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 회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군민 모두 가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완주의 새로운 문 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완주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사랑드리봉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신봉지구 복합타 운 일원에서는 사랑드리봉사회(회장 남만 우)와 함께 하는 '제2회 초록발걸음 행사'가 지난 18일 진행됐다.

관내 산단 임직원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구성된 이 봉사단은 환경정화활동 은 물론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활동 등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과 지역을 사랑하는 가족 단위 참여로 100여 명이 모여 아이들 을 위한 지구환경퍼즐 만들기, 야광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코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함께 실천하고자 행사장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후 푸짐한 행운권 추첨과 평소 지역 봉사에 솔선수범한 오경 희, 김동훈 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등 다채 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 으로도 사랑드리봉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군 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환경활동이 더욱 확 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비대면 조사 참여 적극 당부

진안군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 가 기본통계 조사로 우리나라 인구 규모와 가구 특성,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다.

이번 조사는 관내 20% 표본 가구와 기숙 및 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주민들의 편의와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 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통계청에서 발송한 안내 문을 받은 조사 대상 가구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가 족 돌봄 시간과 결혼계획·의향 등 7개 신 규 항목을 포함한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군청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무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 건 의무 이행과 유해・위험 요인의 사전 파 악 및 개선을 위해 20일 무주군민의 집 대 강당에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공 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 원 등 모든 종사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 용·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강의를 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김희근 부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요 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유형별 적용 사례, △직장 내 안전관리 실천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 용을 교육했다.

양영두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 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 관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행정기관은 정책 수립과 감독, 안전 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 인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 이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자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 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내 고장 바로 알기 독서 인문 캠프 운영

임실군은 지난 18일 방과후아카데미 청 소년 30여 명이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유 적지인 임실 하가지구와 상가윷판유적지 를 탐방하며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 를 직접 체험하는 내 고장 바로 알기 독서 인문 캠프를 운영했다.

특히, 상가윷판유적지에서는 바위에 새 겨진 별자리와 윷놀이의 흔적이 청소년들 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놀이로만 알았던 윷 놀이가 선조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보였다.

이번 활동은 임실문화원, 임실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도 서관, 글로컬이음이 협력하여 기획했다. 기 관들은 청소년들이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깊이 있는 배움과 자긍심을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 유적 탐방이 청소년들에게 역 사적 상상력과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살 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도 시행

관내·진안군 안천면 60분이내최대3회무료환승

무주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도 (이하 무료 환승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무료 환승제도는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무주군 관내를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

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일 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라며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드로 1회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환승할 경 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 라고 밝혔다. 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에서는 1회 등 총 3회까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지 무료 환승이 적용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는 환승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도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률과 지역 간 이동 편의 버스 이용자는 최초 탑승 시 교통카 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 들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무료 환승제도를 안정 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군민 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 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완료

효율적인 공간정보 제공 마을회관에 배부·설치

진안군은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 도' 제작을 완료하고, 20일부터 3주간 각 마을회관에 종합지도를 배부·설치 한다.

이번 사업은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농촌 주민을 위해 마을별 주 요 건물, 도로명, 공공시설, 제설함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담은 종합지도를 제작함으 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올 해 3월부터 추진됐으며 총 4,785만원의 예산(도비 1,435만원, 군비 3,350만원) 을 투입해 2022년 구축된 기초행정구 역 공간정보 데이터를 최신화하는 작 업을 거쳤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구역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주민들



진안군은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20일부터 3주간 각 마을회관 에 종합지도를 배부·설치한다

가 크다.

종합지도에는 지역 내 주요 시설과 행 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는 의미 의 행정서비스 이용 효율성을 크게 높 일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공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체류 인구 배수 전국 1위

통계청 2025년 1분기 분석결과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무주군이 체류 인구 배수 상위 지역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2025년 1분기(1 월~3월)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평균 26 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대비 11배가 넘 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 월에는 42만여 명이 체류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25만여 명이 집계된 2월에 는 2위를 차지했다. 방문객 연령층 분 석에서는 1월 한 달간 20~30대 'MZ세 대'가 13만 명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체류 인구 규모는 전국 10위 수준으로, 동계 자원을 바탕으로 외부 방문객이 꾸준 밝혔다.



히 방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체 류 인구 증가가 숙박, 음식, 소매업 등 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 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 스포츠와 풍부한 자연환경, 관광·문화 록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주군이 겨울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 관광지로, 더 나아가 생활하고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매출 증대로 이 머무르기에도 최적의 지역이라는 인식 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광과 생활·편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N치즈축제, 뜨거운 현장 열기 속 대대적 홍보

임실군홍보담당관 다채로운이벤트로큰호응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 다. 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주관의 다양한 참여형 홍 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 험거리를 마련한 축제장에서 홍보담당 관은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 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임실 방문의 해와 고향사

랑기부 홍보부스 등 두 개의 홍보관이 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설치되어 임실군의 매력과 가치, 그리 고 지역사랑 실천의 의미를 함께 알렸

벤트와 현장 구독 이벤트를 병행 운영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직접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스 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임실군 26개 관광지 중 7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했는데, 1일 100명, 총 500명이 혜택을 받아 축제장을 넘어 임 실 전역으로 관광 동선을 넓혀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

동을 통해, 총 123명의 기부자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먼저, 임실군 공식 SNS 댓글 응원 이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 동을 추진한 결과, 축제 기간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하 더불어 관광객이 임실의 주요 명소를 는 성과를 거뒀다.

> 군은 이와 함께 '임실엔TV' 유튜브 구 독 캠페인, 임실 관광 리플릿 배포, 실 시간 SNS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온오 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이어갔다.

> 군은 이 여세를 몰아 12월 크리스마 스 기간에 펼쳐지는 임실 산타축제에 서도 즐겁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 >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14회 논개시낭송 경연대회 성료

충절정신예술로되새긴무대

장수군은 지난 18일 장수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4회 논개 시낭송 퍼포먼스 전국경연대 는문화(국회의장상·상금 500만 원) 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들의 열띤 경연 속에 성황리에 마 무리됐다고 밝혔다.

선양회가 주최하고 전북재능시낭 송협회가 주관했으며, 장수군과 전 북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신을 시(詩)와 낭송, 퍼포먼스 예술 로 승화시켜 국민적 공감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충절의 상징인 논개의 숭

고한 정신을 시(詩)와 낭송, 퍼포먼 스 예술로 승화시켜 국민적 공감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결과 △논개대상 서울시 읽 △금상 문화예술협동조합(전북특 별자치도지사상·상금 250만 원) △ 은상 대구 솔바람물결소리(장수군 이번 대회는 (사)의암주논개정신 수상·상금 150만 원) △동상 백야 예술단, 부산 소리마루(장수군의회 의장상·각 100만 원·2팀) △장려상 경남 낭송문학회, 한반도 문화예술 대회는 충절의 상징인 논개의 정 원, 광주 시낭송협회(의암주논개정 신선양회장상·각 80만 원·3팀)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가려졌 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성황리에 마무리

약 88톤 건고추 거래

'2025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9일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 다.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은 판매 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 234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추시장 식의 직거래 장터로 운영돼 매년 인기 을 운영할 예정이다. 를 끌고 있다.

과 9일마다 진안 장날에 맞춰 총 15회 동안 진행됐으며 약88톤(14만7천근) 의 건고추가 거래됐다.

평균 해발 45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 자란 진안고원 건고추는 껍질이 두

껍고 빛깔이 선명하며, 향이 뛰어나 고 춧가루로 가공해도 품질이 우수해 매

진안군은 2026년에는 지난 2015년 ~2019년까지 고추 시장이 운영됐던 홍삼한방센터 주차장(진안읍 군상리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고추 시 올해는 지난 8월 4일 개장해 매 4일 장에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주신 방 문객과 농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안 고추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6년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장수군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교육생을 내달 21일까 리큘럼을 강화해 재배기술 향상과 농 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록 편성됐다.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스마트팜 토마토 중급반 △스마트 팜 토마토 심화반 △사과 다축·밀식 과정 등 총 3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1개월간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 실 보할 예정이다. 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토마토 심화반의 단계별 학습 수요를 반영해 2026년에는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했 다.

또한 사과 다축·밀식 과정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현장 실습 중심의 커 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교육 신청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군 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장수군청 및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촌지원과 농업 인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28일까지 교육생을 확정하고 개별 통

>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농업 기술센터(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063-350-2831)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개회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등심의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0월 20 일,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하였다.

계면 하천을 활용한 발전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수군수가 제 출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 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이어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복)에서는 각 읍·면에 위 치한 주요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사 업 추진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을 비롯 해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복의원의 '장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할 예정이다.

>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이 올바 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삶이 실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식품, 익산 남중동에 두부총 156모기탁

익산시 남중동은 이웃을 위한 든든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식품(김호정 대표)'은 지난 7월부터 매 주 남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두부를 기 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두부 총 156모(80만 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이달에도 꾸준히 나눔 을 실천 중이다.

장수식품은 익산장에서 두부를 비롯해 누룽 지, 된장,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운영하는 여수와 인천 지 점에서도 각 지역 주민을 위해 기탁을 실천하 는 등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호정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 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갓 만든 따뜻한 두부 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온정 담은 두부 나눔을 이어가 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관촌면 새마을부녀회, 사랑 愛 고추장 나눔 실시

임실 관촌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7일 독거 노인, 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등 소외된 이웃 을 위한 '사랑 愛 고추장 나눔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추장 100kg을 직접 담가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가가호호 방 문하여 전달하고 애로점을 듣고 살펴 드렸다.

관촌마을 이00 씨는 "혼자 살면서 입맛 없을 때 먹는 고추장은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음식" 이라며"옛고향의 맛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금자 부녀회장은 "정성과 사랑으로 담근 고추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길 바라고, 밑반찬 조리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삶 영위에 기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전했다.

소지현 관촌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로 를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으로 행복을 전하는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관심과 온정을 전할 수 있는 관촌면이 되 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마이산도립공원-국립공원, '바다의 시작' 캠페인 실시

도립공원중최초실시

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 마이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다. 도립공원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바다 서부지역본부와 내장산·무등산 의 시작'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개최된 '호남권 자연공원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국립공원-도립공 원 공동 협력사업으로 전북·전남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우수관 보했다. 을 통해 해양으로 흘러가는 쓰레

기를 차단하고, 해양오염의 근본 원인을 육상에서부터 예방하자는 진안군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 취지로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이날 캠페인에는 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참여해 마이산도립공원 내 우수관 주변의 담배꽁초와 쓰레 기, 낙엽 등을 청소하고, 20개소의 우수관 바닥에 '바다의 시작' 스티 도립공원까지 확대 운영에 따른 커를 부착했다. 또한 탐방객을 대 상으로 종이 피켓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저감의 중요성을 적극 홍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 마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기후위 기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바다의 시작'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군가족센터. '온데이(ON-DAY)' 행사 성료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철)는 지난 17 일 센터 일원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행사 '가족센터 온데이(ON-DAY)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 간'을 주제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 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온데이'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 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할로윈 분장 체험(페 이스 스티커·코스튬) △거미 사탕·과자 만들 기 체험 △탭탠싱어 공연 △가족 포토존 촬영 이벤트 △ 감성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운영되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수지초, G-PRC 드론 로봇 대회서 금·은·동 휩쓸다

전교생 32명 참가

난 17일부터 18일까지 남원종합스 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 는 1~5학년 16명이 참가해 금상 2 원 G-PRC 드론·로봇 대회'에 전교 명,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상 6명 생 3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참가에는 남원시 지원 예선 전국대회에서도 로봇과학 부 사업인 '2025 찾아가는 드론교실'과 방과후 '드론비행' 프로그램, 2학기 '로봇과학·드론교실' 선택반 운영 등이 밑바탕이 됐다.

첫날인 17일 로봇과학 분야 '스피

드터치 커넥트' 부문에는 2~6학년 16명이 출전해 금상 4명, 은상 2명, 수지초등학교(교장 사향희)는 지 동상 6명, 장려상 4명 등 전원이 수 상했다. 드론 부문 '스피드드론'에 이 수상했다. 둘째 날 열린 남원시 문 3명이 출전해 특상 2명, 동상 1 명, 드론 부문 10명이 출전해 특상 2 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5명 이 각각 입상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볼링홀릭 패밀리' 개최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족 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족 볼링 족 간의 응원과 협력을 통해 즐거 대회 '2025 완주군청소년어울림마 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당 볼링홀릭 패밀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통과 협동심을 강화하고, 청소년 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계기 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가 시 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5가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 30여 명이 참가해 활기찬 분위기 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볼링 실력보다는 가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 간 최근 열린 행사에는 가족 간 소 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청소년들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군 심원면 김상섭씨, 소금 라면 기부

김상섭씨, 소외된 이웃 챙기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고창군 심원면 염전마을 김상섭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 며 소금(20kg) 52포, 라면5박스를 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 깊 기탁해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다양 겠다"고 밝혔다. 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상섭씨는 "염전에서 오랜 시 간 정성 들여 생산한 소금이 지역 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방준형 고창군 심원면장은 "지 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 김상섭씨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산외면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60가구에 반찬 전달

정읍시 산외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양임) 가 지난 17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온 기를 더했다.

이날 부녀회원 3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 여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식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밑 반찬을 조리했다. 이들은 손수 만든 반찬을 용 기에 담아 포장한 뒤, 관내 취약계층 60여 가 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알림]

제10회 (사)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보존협회전

기간: 10.28~11.2 장소 :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1관 연락처: 010-3655-7567

가을철 산불 예방 수칙 뉴스특보 건조 특보 산림, 인접한 곳에서 허용된 지역의 건조 특보 시 산림 내 흡연금지 농부산물및 쓰레기 취사및 야행 금지 입산 자제 하기 성냥,라이터등 소지 금지 소각 금지

〈一事一言〉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2)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현무-5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8~9톤이며 폭발력은 현재 TNT 약 11톤을 상회하지만 14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동아일보〉(2023.12.27.) 보도가 있었다. 폭발력으로만 본다면, 현 무-5가 아무리 세계 최대수준의 고위력 재래식탄두라고 하지만, 화산-31형 핵탄두보다 1/1,00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옴 직하다. 하 지만 이는 미사일 탄두의 폭발력 을 가리키는 것일 뿐 살상력을 비 교한 것이 아니다.

폭발력(Yield)은 폭탄이 폭발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 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적 인 힘의 정도를 가리킨다. 살상력 (Lethality)은 무기가 목표물(주 로 사람)에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 하며, 폭발력·파편·충격파 등 다 양한 요소의 결과다. 실제로 북 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은 단순 히 폭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살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 라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면, 고위력 재래식무기로도 핵무 기를 억제할 수 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 심수단이자 유력한 핵 억제수단 이다. 현무-5의 탄두중량은 최대 9톤이며, 여기에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장착할 경우 넓은 면적에 걸쳐 초토화가 가능하다.

집속탄금지협약(CCM)에서 20kg 미만의 폭발성 자탄을 포함하는 무기를 집속탄으로 정의한다. 현 무-5에 탑재 가능한 집속탄은 설 계와 효율에 따라 무게 2kg 자탄 을 최대 4000개, 도합 8000kg까 지 탑재할 수 있다.

집속탄은 모탄(미사일 탄두)이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여 수많은 소형 자탄(sub-munition)을 살 포하고, 각 자탄이 분산되어 넓은 지역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살상력을 극대화한다. 집속탄에는 고폭화약을 사용하 거나 화학작용제를 사용한다. 실 제적인 집속탄의 살상 효과는 고 도, 풍속, 자탄의 분산 패턴에 따 라 달라지고 자탄 간에 살상면적 의 중첩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탑 재된 수천 개의 자탄이 최적의 간 격으로 지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살상 면적이 중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최대 살상면적(Atotal)으 로 계산하기로 한다.

첫째는 155mm 포탄용 M483A1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 약(DPICM)의 자탄인 M42/M46 을 사용할 경우다. 인마살상이 가 능한 DPICM의 탄두중량은 40kg, 자탄 1개 무게는 약 0.24kg이므로 집속탄 1개당 자탄 160개 정도 를 탑재할 수 있다. DPICM 자탄 의 유효살상반경은 7m이기 때문 에, 살상면적은 2만 4630㎡다. 이 는 면적 7140㎡(FIFA 규격, 가로 105m, 세로 68m)인 축구장 3.5개 면적의 살상효과를 나타낸다. 현 무-4의 탄두중량을 2~4톤으로

보면, 이는 축구장 175~350개 면 적의 살상효과를 갖는 것이 된다.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 휘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 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 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 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kg 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 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체 무게 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 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 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 이 560kg일 때 0.58kg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 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kg로 줄 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 (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 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kg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 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 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땐 적은 양 (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 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 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 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 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 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 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 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 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kg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 탄 1개의 무게를 2kg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폭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 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 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 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 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 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 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 우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 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 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벙 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 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완주 제2혁신도시 공약, 철회하라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원 택 국회의원이 내놓은 '제2혁신도시 조 성' 구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완주 삼봉지구에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제안은 얼 핏 보면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계산에 더 가깝다.

혁신도시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분명하 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 방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균형발전 전략이다. 하지만 완주 는 이미 '전주·완주 혁신도시'라는 이름 으로 혁신도시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완주는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유일 하게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과 생활여건 이 개선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지역에 다시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 는 발상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완주 혁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전주권의 생활·경제권 확장이다. 수도권 공공기 관 추가 이전을 이 지역에 또다시 집중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전주 완주 중심 의 행정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도 혁신도시는 도청 소재 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성해 왔 다. 충북의 진천·음성, 경북의 김천, 전 남의 나주, 강원의 원주가 그러하다. 이 는 지역 내 집중조차 피하려는 균형발전 철학의 구현이었다. 그런데 전북은 이미 도청권에 인접한 완주에 첫 혁신도시를 만든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면 이는 전국적 기준에서도 예

외적이며 위험한 선례가 된다.

이 의원의 제안이 더욱 문제인 이유는 이 구상이 도지사 선거용 공약으로 기획 된 의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전주·완 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이슈를 슬 그머니 끼워 넣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표 계산용'으로 활용하려는 정 치적 냄새가 짙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설계한 자당의 철학을 거스르는 공약을 내세운 다면, 그것은 곧 정책적 일관성과 정당 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 다. 이런 시점에 전주·완주권만을 위한 '제2혁신도시'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도 민 간 갈등을 키우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 조성의 구호가 아니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 간 연계성 강화다. 산업·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 해 전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 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의 길이다. 도지사 출마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도 민의 표보다 도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야 한다.

'제2혁신도시'는 선거용 미끼가 아니 라 전북 균형발전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 야 한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 이 기주의를 부추기는 공약을 철회하고 전 북 전체의 균형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 이야말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정치 의 출발점이다.

▲ 오늘의 시

사람의 가을 / 문정희

나의 신은 나입니다. 이 가을날 내가 가진 모든 언어로 내가 나의 신입니다 별과 별 사이 너와 나 사이 가을이 왔습니다 맨 처음 신이 가지고 온 검으로 자르고 잘라서

시인 약력: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 을 수상했다. 문학' 신인상에 당선돼 등단했다. 현대문학상

모든 것은 홀로 빛납니다 저 낱낱이 하나인 잎들 저 자유로이 홀로 인 새들 저 잎과 저 새를 언어로 옮기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 이 가을

산을 옮기는 일만큼 힘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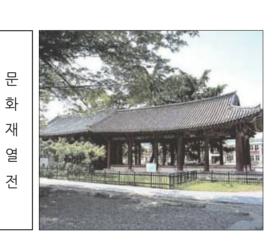
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9년 '월간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하늘보 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시인 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 하나로 완성입니다 새, 별, 꽃, 잎, 산, 옷, 밥, 집, 땅, 피, 몸, 물, 불, 꿈, 섬

그리고 너, 나 이미 한편의 시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의 신입니다. 이 가을날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목월문학



순창객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궁궐·관아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순창7길 40 (순창읍, 순창초등학교)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남원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인후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을 군산으로 훌쩍 떠나보자! 군산 숨겨진 여행코스

근대문화의 자취가 남아있는 '시간여행마을' 섬이 빚어낸 한폭의 풍경 '고군산군도' 등

사계절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군산에 최근 가을여행 방 문객들의 발길이 잦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군산여 행의 추천코스를 알아본다.

◈ 군산시간여행마을

군산은 1899년부터 개항되어 일찍부터 외국의 근대 문물 각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전해지면서 발전해왔다. 때문에 군산 시내 곳곳을 걷다 보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던 영향으로 아직도 군산에는 일본식 집, 세관, 은행, 절 등이 남아있다. 대표 사적으로는 부잔교, 식량영단, (구)조선은행 등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삶과 항쟁의 역사를 배우기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 여행의 목적지로 군산은 손색이 없다.

시간여행마을과 가까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 해 있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외지 손님들의 방 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이었던 신 흥동에 세워진 주택으로 히로쓰 가옥으로 불린다.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 림 식당, 횟집 등), 편의점 총 10개가 운영중이다. 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 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됐다.

◈ 고군산군도

무녀도, 대장도, 관리도, 횡경도, 말도, 방죽도, 신시도, 명도, 일은 휴무이다. 야미도, 연도, 어청도, 개야도, 죽도, 비응도 등 16개의 유인 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다채로운 섬이 함께 한 덕에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 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등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 도 즐비하다. 등산 및 하이킹·캠핑·바다낚시·갯벌체험·공중 하강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역시 가득해 최고의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

추천코스는 '장자교 스카이워크'로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 는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야간에는 수많은 LED경 관조명이 연출하는 신비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워크 옆 장자도의 대장봉을 올라가면 고군산 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매력적인 장관 덕에 일출·일

몰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 은파호수공원

군산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인 은파호수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속 관광 쉼터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곳곳에 물빛다리, 음악분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과 조 깅코스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야경이 아 특히 많은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기 위해 군산에 모여들어 름다운 1.1km의 별빛다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친 마음과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 곳곳에 멋스러운 카페와 맛집들도 생기면 서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로 인기 만점이다.

◈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군산의 해망동에 자리잡은 어시장으로 군산 시내와 인접 문이 급증하는 서해안 대표 어시장이다. 본관동 및 임시 건 어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동 1층 수산물 판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점포 72여개(활어, 선어, 수산가공품), 2층 수산물 식당(상차

본관동 1층에는 신선한 활어와 선어, 젓갈과 같은 수산가 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에는 1층에서 판매하는 횟감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 횟집 등이 있다.

건어동은 올해 10월 신축 건어 매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 며, 현재는 임시 매장 25개가 다양한 종류의 건조 생선을 판 군산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장자도, 매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매주 화요

◈ 청암산

군산 청암산은 군산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8년 개방된 후, 생태관광지로 조성된 곳이다. 덕분에 여전히 사람의 손 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추천코스는 수변 산책로와 등산로를 이용해 청암산 정상 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주차장 - 억새풀길 - 산림욕장 - 왕 버드나무 군락지 - 삼거리 쉼터 - 청암산 정상 - 삼거리 쉼 터 - 주차장까지 돌아오는 4.5km 거리이다.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